

# '팍스 아메리카나' 퇴조... 정치·경제 권력 이동 시작됐다

## ■ 2009 지구촌 기상도

### 1 새로운 국제질서 시동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유럽통합, 중국·인도 등 이머징 마켓의 부상이라는 예외 과정을 거친 뒤 지난 9월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재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선진국들이 장악해온 국제금융권력에 일대 변화가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브

정치·안보 면에서도 다극화의 조짐은 뚜렷하다. 중국이 미국과 양보없는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미국 대통령에게 공공장소에서 신발을 던질 정도의 반미 정서가 중동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승산 없는 이라크 전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는 그루지야를 침공해 역내에서 자국의 힘을 공고화하려 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



재무장관들간의 연례행사인 G-20 회의가 국가의 최고수반이 참가하는 정상회의로 격을 높여 개최된 자체는 전후 수십년간 세계 경제체제를 장악해온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의 금융패권이 중국과 인도, 브라질, 한국 등 신흥시장국들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빌딩뮤지엄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美 영향력 급감... 中·인도 등 급부상

라질·인도 등 이른바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countries)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는 신흥국가들의 발언권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며, 경제권력이 분점기로 접어들었다는 해설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변화의 움직임은 달러화의 불안정성에서도 읽혀진다.

그동안 기축통화로서 가졌던 달러화의 확고부동한 지위는 지난 2002년 부터 유로화의 도전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에도 일정 지분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에서 친미 정권이 몰락한 뒤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

국제기구의 상징인 유엔에서도 변화의 기운은 오래전부터 감지돼 왔다. 미국의 발언권이 점차 EU에 밀리고 있고, 여기에 영국이 EU에 가입하게 되면 EU는 환경·인권 등의 지구촌 핵심 이슈를 장악하면서 그 영향력을 더욱 넓힐 공간이 크다.

또한 유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중인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경우,

현재 미·영·프·중·러의 5개 상임이사국의 위상은 약화되면서 일본·독일·브라질 등이 다극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 질서의 재편 와중에서 변방의 약소국으로 취급받아온 국가들도 나름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 남미국가연합, 아프리카지역기구 등이 대표적이다. 살아 남는 것이 아닌 다극화의 한 축으로 미국이나 EU, 중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계산수이다.

### 2 변화 주도하는 오바마



다극화 시대의 도래는 기본적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세력 약화 등 국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대외정책 전환을 선언함에 따라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의 손에 핵무기나 핵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미국의 독주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전세계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핵문제와 함께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 문제 해결에도 새로운 접근을 다짐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쇄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군림하는 대신에 21세기 각종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옛 동맹들과 파트너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국제적 협력시대를

## 군림하는 미국서 협력하는 미국으로

오바마 당선인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마디로 동맹국들과 공조·협력의 틀을 확대하고 적대국과도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펼치는 등 미국 외교정책을 쇄신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평화와 공존을 지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특히 테러조치이나 이른바 불량국가들

열어가는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구체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분야로 테러와 핵무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가난, 종족살인,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등을 꼽고 있다.

아시아 정책과 관련, 오바마는 아시아에서 양자간 협정, 정상회담이나 6자회담과 같은 협의체를 능가하는 효과적인 협력의 틀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 3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에 내준 세계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 경기침체로 몰락의 길을 걸었던 공산권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금융위기에 빠지자 내심 패재를 부르고 있다. 중국은 합종연횡(合縱連衡) 외교에 들어갔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 패권을 상징하는

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 등은 이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냉전시대 당시 미국과 함께 양극화 체제의 한 기둥을 차지했던 러시아도 요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미국 일본도의 단극체제를 거부하는 선행에 러시아가 서 있기 때문이다.

크렘린이 추구하는 외교노선은 다극체제 안에서 국제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서는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가와도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냉전 후 최악의 관계를 보이는 미국도 포함된다.

## 美 금융위기 계기 세계 주도권 잡기

기축통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개방도상국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위안화가 달러화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채택한 전략이 한 세력을 이용해 다른 세력을 무찌르는 이이제이(以夷制夷)다. 유럽국가들을 상대로 달러화 대신 유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한편 러시아와 무분화화 위안화를 무역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자

이라크전 실패와 금융위기로 미국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도 이를 미국의 '일방주의'를 타파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 듯 요사이 중국, 인도, 남미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가 역내 안보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러시아 주도의 새로운 유럽안보조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 4 꿈틀대는 지역공동체

세계무대에서 변방에 불과했던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도 지역공동체 결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남미대륙 12개국의 남미국가연합, 아프리카 지역기구가 바로 '국제사회의 다극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다.

아세안은 창설 40주년을 계기로 통합의 속도를 배가하고 있다. 아세안은 지난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역동적인 아시아에서 하나 된 아세안'이란 슬로건으로 제13차 정상회의를 갖고 지역공동체의 헌법 구실을 하게 될 역사적인 '아세안 헌장'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설립을 위한 청사진에 서명했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청사진에 따르면 경제와 통상 개방으로 2015년까지 아세안 역내에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남미대륙 12개국이 지난해 5월23일 브라질 수도 브라

## 동남아·남미·아프리카 국제사회 새로운 세력 부상

질리아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탄생시킨 '남미국가연합'도 남미지역의 숙원인 남미통합의 꿈을 실현해줄 동력이 될 전망이다. 남미 국가들은 남미국가연합 출범을 계기로 지역통합을 향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통합의 묘'를 살려내기 위한 지역공동체 구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등 동·남아프리카의 3대 지역기구는 지난 10월 수단에서 회의를 갖고 자유무역 지대 창설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1년 이내에 시장 통합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들 3개 기구에 참여한 국가는 모두 39개국에 달한다. /연합뉴스

2009 經濟新年

# 의·치의학/약학

## 전문대학원 MDPass 의(藥)학원

### 진학전문교육기관 개강 1월 2일

기초과정 (1학기 2학기)

###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1월 2일 개강

<b>일반강사</b> 김광아 연세대학교	<b>일반강사</b> 황재현 연세대학교	<b>유기화학</b> 이동영 연세대학교
<b>일반강사</b> 박승기 연세대학교	<b>영어수업</b> 김영민 연세대학교	<b>약학특강</b> 서정환 연세대학교

**50% 장학금**

최수준을 겸시할 때만 장학금 지급합니다.  
내국·외국·재학생 모두 대상입니다.  
최고 장학금 100만원 지급합니다.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비밀번호 지정입학 지원금

비밀번호 지정입학 지원금  
비밀번호 지정입학 지원금  
비밀번호 지정입학 지원금

# MDPass 醫藥학원

문의 263-5453 (박구정 맞은편) | 전화 255-9119 (전북대 병행 입학)

www.mdpass.com

# 서울고시학원

문의 514-4560